

## 정서적 미술작품에 대한 선호가 성격 유형에 의해 달라지는가?

Does the Preference for Emotional Paintings Depends on Personality?

윤요선\* · 이승복\*†  
Yosun Yoon\* · Seungbok Lee\*†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whether aesthetic preference is related to the personality of an individual or not. Even though prior studies have reported that aesthetic preference for a certain style of art is associated with a personality factor, it is more important to focus on impressions and feelings about paintings than the style of art. The present study tried to examine how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feelings about paintings are related to a personality factor, and that familiarity has an effect on aesthetic preference. After participants answered a Big-Five personality questionnaire, they then rated the preference for and familiarity about paintings which implied emo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with higher scores of neuroticism preferred negative paintings. A preference for negative paintings is hard to explain, but this could be explained by results of this study. A hypothesis that familiar paintings would be more preferred is supported by the data. Aesthetic preference has both objectivity and the subjectivity. This study explained subjectivity through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vestigate art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rather than conservative methods that sort paintings into art history.

**Key words:** Neuroticism, Negative Emotion, Familiarity, Preference of Art, Big Five Theory

### 요약

본 연구는 미술작품의 선호가 개인의 성격요인과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사조에 대한 선호와 성격요인과의 상관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으나, 감상자에게 예술작품은 사조보다는 그림 자체가 주는 인상과 느낌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 부정 정서를 일으키는 그림과 특정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중립적인 그림이 성격요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자극의 친숙성이 그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참가자는 성격 5요인 질문지에 응답한 후, 제시되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평정하였다. 선호 평정이 끝난 후, 앞서 제시된 자극들을 다시 보고 그 그림을 알고 있었는지를 평정하였다. 결과, 성격 5요인 중 신경증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그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슬픔, 고통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예술에 대한 선호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신경증이라는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6054557).

※ 이 논문은 201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 이승복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lsbok@chungbuk.ac.kr

TEL : 043-261-2188

FAX : 043-269-2188

성격요인으로서의 설명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각 정서표현 그림의 친숙점수와 선호점수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나 친숙한 그림이 더 선호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예술작품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주관성과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미의 객관성이 모두 존재한다. 본 연구는 예술 선호가 갖는 주관성을 성격이라는 개인차를 통해 설명하고, 기존 연구의 사조적 분류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술작품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신경증, 부정적 정서, 친숙도, 미적선호, 성격 5요인

## 1. 서론

예술 선호에 대한 개인차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술선호도와 개인차에 대한 초기연구는 기초적 시각 특질들을 사용하여 개인차의 기본 특질인 성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다각형의 면들을 다양화하여 이 자극들 중 어떤 자극이 특정 성격특질과 관련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던 연구들이 수행되었고(Eysenck, 1972; Looft & Baranowski, 1971), 선들을 이용하여 그림의 복잡성을 통제한 후 이 자극들이 개인의 어떤 성격특질들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던 연구들이 있었다(Dellas & Gaier, 1970). 그러나 Gadamer(2000)는 예술에 대한 경험을 위해서는 작품이 지닌 유의미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초적 시각 특질들은 유의미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미적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세계를 담고 있는 실제 미술작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기초적 시각 특질들을 자극으로 사용한 연구들처럼 명확히 어떤 요소가 개인차를 반영하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집어내기는 힘들지만, 실제적인 미적 경험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미술작품들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격 5요인 이론(Big Five Theory) 척도(Goldberg, 1999)를 사용하여 어떤 성격요인들이 특정한 양식의 그림의 선호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Chamorro-Premuzic et al., 2009; Furnham & Avison, 1997; Furnham & Walker, 2001a, 2001b; Rawlings, 2003). 성격 5요인 이론은 본래 비임상적 개인차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로, 성격특질의 다섯 가지 주요 요

소 또는 차원을 말하지만, 예술작품에 대한 선호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Chamorro-Premuzic et al., 2009).

성격 5요인 이론(Goldberg, 1999)을 Hong(2014)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향성(extraversion)은 얼마나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며 얼마나 사교적인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내향성으로, 조용하고 사색적이라는 특성이 내향성을 나타낸다. 신경증(neuroticism)은 부정적 정서와 그것의 통제와 관련이 있다. 신경증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긴장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개방성(openness)은 새로운 것을 잘 수용하며 호기심이 많다는 특성을 포함한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계획성, 신뢰성, 책임감의 특성과 관련된다. 의무와 규칙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친화성(agreeableness)은 예의 바름, 따뜻함, 호의성, 배려, 양보심 등과 관련된다.

Chamorro-Premuzic 등(2009)에 따르면, 성격 5요인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 미술선호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동향은 미술 사조에 의해 미술작품을 분류한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Chamorro-Premuzic et al., 2009; Furnham & Walker, 2001a, 2001b; Rawlings, 2003). Chamorro-Premuzic 등(2009)의 연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개방성이 전반적인 예술 선호를 예측하는 유일한 성격요소라는 것과, 성실성이 전반적인 예술 선호와 부적 상관(negative correlation)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개방성과 예술작품 선호의 관계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성실성과 예술작품 선호의 부적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과 비일관적 결과가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 친화성은 인상주의 작품에 대한 선호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Furnham과

Avison(1997)의 연구 결과는 개방성과 친화성이 재현 미술 선호와 정적 상관(positive correlation)이 관찰되었고, 추상화에 대한 선호는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Furnham과 Walker(2001a)의 연구에서는 개방성 요인은 재현미술, 팝아트, 추상화 선호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여, 개방성이 전반적인 예술 선호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 신경증이 높을수록 추상화, 팝아트를 선호한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팝아트에 대한 선호는 친화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성실성은 재현미술에 대한 선호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그림자극을 미술사조로만 분류하지 않고 그림 자체의 특성을 기초로 분류하여 사용한 첫 연구가 Furnham과 Walker(2001a)의 연구이다. 앞에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미술 사조를 기준으로 자극들을 분류하여 추상화, 팝아트, 일본화를 자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성격 5요인에 더하여 성별, 나이, 직업, 국적, 예술 경험, 예술 지식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들은 그림들을 미술사조로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림들을 그림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재현적, 현실적 그림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참가자에게 그림에 대한 선호를 물을 때 그림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제시된 그림을 미술관에 전시하고 싶은 정도, 자신의 집 거실에 전시하고 싶은 정도, 그림을 그린 작가의 자질 평가 점수, 그림의 책정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개방성과 예술에 대한 선호의 정적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만큼은 아니었으나 팝아트 작품과 추상화 작품을 갤러리에 걸고 싶다는 정도, 추상화 작품에 대한 예술가의 자질을 판단한 점수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신경증은 재현 미술작품의 가격 산정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성실성은 선호 점수와 가장 많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재현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가의 자질, 팝아트 작품을 갤러리에 걸고 싶은 정도, 팝아트 작품을 그린 예술가의 자질, 일본화를 그린 예술가의 자질을 판단한 점수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개방성의 경우, 팝아트와 추상화 작품을 갤러리에 걸고 싶은 정도, 추상화 작품을 그린 예술가의 자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awlings(2003)의 연구 또한 그림 자체의 특성에 따라 그림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Furnham과 Walker(2001a)의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Rawlings(2003)는 미술작품을 정서적 기준(유쾌한, 불쾌한 그림과 사진)으로 분류하여 성격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격요인 중 개방성이 유쾌, 불쾌 추상화 양쪽의 선호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신경증은 유쾌(pleasant) 추상화 선호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곧, 추상화에 대한 선호를 보면, 개방성이 높은 이들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추상화를 모두 좋아하였지만, 신경증이 높은 이들은 유쾌한 추상화에 대해 부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Rawlings(2003)의 연구는 그림 자체가 갖는 특성에 의거하여 자극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그림에 표현된 ‘정서’가 미적 선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같은 참가자에게 추상화와 재현미술, 사진자극을 모두 보여주었으므로 미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추상화, 재현미술, 사진자극 순서로 제시되었다면, 자극의 수준이 차츰 구체적으로 변해간 셈이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표상된 자극이 더 큰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구체적인 사진에 대해 유발된 정서와 추상화를 보고 유발된 정서의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추상화보다 사진자극이 해석하기 쉽다는 점에서 추상화에 대한 선호가 사진자극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wlings(2003)의 연구와 같이 정서적 기준에 의거하여 미술작품을 분류하되, 명확한 비교를 위해 중립적 정서 그림을 추가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종류의 미술작품만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문제를 보완하여 ‘아름다움’, ‘예술 선호 경향’을 그림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정서적 기준으로 분류된 그림들에 대한 평가와 성격요인 간 어떤 상관이 나타날 것인가? Shiota 등(2006)은 기쁨, 만족감, 자부심, 사랑, 열정, 즐거움, 존중의 7가지 항목으로 규정된 ‘기질적 긍정적 정서 척도(Dispositional Positive Emotion Scales)’를 사용하여 참가자의 최근 긍정적 상태와 성격 5요인과의 관

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 정서로 규정된 7가지 항목 모두가 외향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높아, 긍정적 정서와 외향성이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신경증은 기쁨, 만족감, 자부심, 사랑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는 미술작품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는 외향성 요인은 긍정적 정서 그림에 대한 선호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신경증 요인은 부정적 정서 그림에 대한 선호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널리 지적되고 있는 것이 친숙성이다. 친숙성과 선호는 처리 유창성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처리 유창성 이론(processing fluency theory)이란, 정보처리가 쉬운 대상이 선호되는 경향을 말한다. 곧, 인지적으로 유창하게 처리되는 정보가 더 선호된다(Reber, 2012; Reber et al., 2004).

친숙한 대상은 친숙하지 않은 대상보다 정보처리가 더 쉽게 이루어지며, 친숙한 대상은 친숙하지 않은 대상과 비교하여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Faw & Nunnally, 1971; Lee et al., 2015; Lemond & Nunnally, 1974).

본 연구는 성격요인과 정서표현 그림 선호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술작품에 대한 친숙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긍정적 정서 그림, 중립적 정서 그림, 부정적 정서 그림 각 조건에 해당되는 작품들의 친숙도 평균이 비슷하도록 자극을 선택하였다. 친숙도 평균이 비슷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참가자 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

과, 세 종류의 그림 간 친숙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61, 130.71) = 4.78, ns$ ).

본 연구에서는 미술작품들을 정서적 기준(긍정적 정서, 중립 정서, 부정적 정서)로 분류하여 제시하여 성격 5요인과 정서표현 미술작품에 대한 선호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어떤 성격요인이 미술작품의 어떤 정서의 미술작품을 선호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개별 미술작품에 대한 친숙함과 선호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 요인은 긍정적 정서 그림에 대한 선호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신경증 요인은 부정적 정서 그림에 대한 선호와 정적 상관관계, 긍정적 정서 그림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방성 요인은 모든 정서표현 그림들에 대한 선호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넷째, 그림에 대해 친숙한 정도와 그림에 대한 선호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곧, 친숙한 그림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것이다.

## 2. 방법

### 2.1. 참가자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의 대학생 82명(남자 43명, 여자 39명)이 조사에 참가하였다. 얼굴표정을 보고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Cho et al., 2007). 참가자의 연령을 다양하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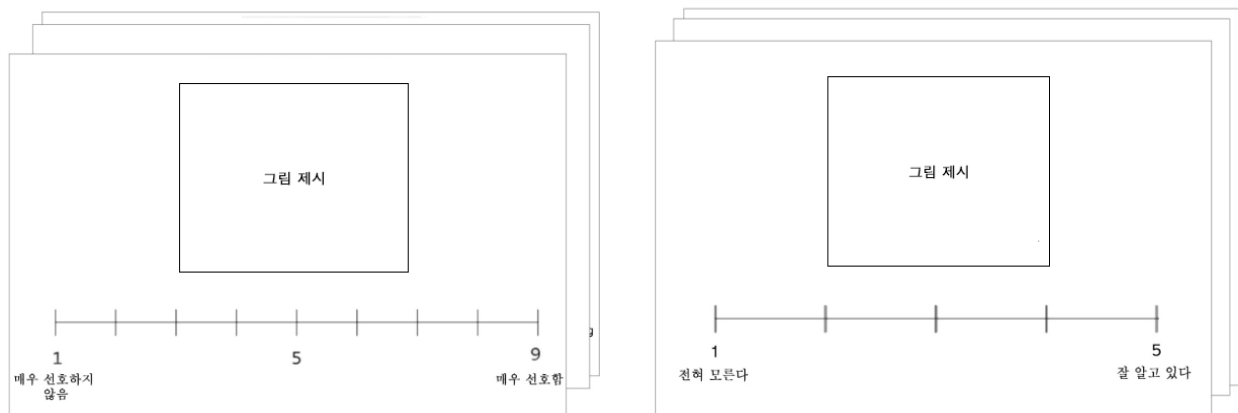


Fig. 1. Example of preference and familiarity ratings for paintings

면 얼굴표정으로 보이는 인물화를 이용한 정서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0대에서 30대로 참가자 연령을 제한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은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었고 조사에 참가하여 얻는 별도의 금전적 이득은 없었다. 모든 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가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술에 종사하거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예술작품에 대한 선호경향이 달랐다(Eysenck & Castle, 1970; Simon & Wohlwill, 1968; Vitz, 1966). 따라서 미술에 대한 전문성과 미술작품에 대한 친숙성으로 인해 미술작품에 대한 선호경향이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어 참가자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적이 있는 경우는 연구 참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2.2. 그림자극

자극으로 사용된 그림들은 모두 근대 이후의 서양화로, 각기 부정적 정서, 중립정서, 긍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그림들이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적이고 정확하게 타인의 기분 또는 정서를 인식한다(Etcoff, & Magee, 1992). 타인의 얼굴, 곧 인물화로의 정서표현이 풍경화나 정물화 같은 다른 종류의 그림에 비해서 정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 실험에서는 이에 따라 인물화를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정서적 분류에 따른 자극 선택 기준은 그림의 제목이었다. 제목은 작품을 제작한 작가가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궁극적이고 대표적인 의도와 목적을 잘 나타낸다(Appendix). 중립정서 그림들은 무표정 인물의 초상화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 ‘혐오’, ‘불안’, ‘질투’, 게르니카(전쟁), 거리 풍경(쓸쓸함), 중립정서- ‘화가의 초상화’, ‘책 읽는 철학자’, ‘편지를 봉하는 여인’, ‘식사 전 기도’, ‘부지런한 어머니’, 긍정적 정서- ‘희망’, ‘삶의 기쁨’, ‘나와 마을(행복), 여인의 초상화(따뜻함), 즉흥화(행복)과 같이 그림의 제목에서 이야기되는 그림에서 표현된 정서를 기준으로 그림들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자극 수는 종류마다 5점씩 총 15점이었다. 실험을 마친 후 자극 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참가자 15명에게 자극을 제시하고 각 자극이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지를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림의 제목으로 선정한 정서자극들은 세 집단이 차이가 모두 유의미해 각 정서를 잘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2) = 40.07, MSe = 18.73, p < .05$ ). 각 정서그림 평정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았다. 부정정서 그림:  $M = 2.83, SD = 0.88$ ; 중립정서 그림:  $M = 5.64, SD = 0.68$ ; 긍정정서 그림:  $M = 6.53, SD = 0.38$ . 자극은 1024×986 화소의 해상도에서 LCD 모니터에 제시되었으며 자극에서 참가자 눈까지의 거리는 약 50cm이었다.

## 2.3. 측정도구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Yoo 등(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방성,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5개의 성격 요인 측정 문항이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에 대한 선호도는 9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는 화면에 제시되는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한 선호도를 “매우 선호하지 않음(1점)”, “보통이다(5점)”, “매우 선호함(9점)”의 9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 2.4. 절차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가하였다.

먼저 성격 5요인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후 모니터에 제시되는 그림들을 보고 그림을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평정하였다. 제시된 그림들은 9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다(Fig. 1). 미적 선호 평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그림에 대한 친숙성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절차는 참가자들이 그림을 알고 있었던 그림이 있는지, 몰랐던 그림이 있는지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에게 특정 미술작품 또는 미술사조의 친숙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제시되는 그림에 대해 확실히 몰랐던 그림이며, 오늘 처음 본 그림이라면 1점, 확실히 잘 알고 있었던 그림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ference, familiarity of emotional paintings

	Preference			Familiarity		
	Positive paintings	Neutral paintings	Negative paintings	Positive paintings	Neutral paintings	Negative paintings
<i>M</i>	5.23	5.91	3.80	2.36	2.07	2.31
<i>SD</i>	1.29	1.14	1.30	0.72	1.02	0.69

*n* = 82.

이라면 5점으로 평정하였다.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화풍 또는 작가를 알 것 같다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면 그 정도에 따라 2점에서 4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평정과제에서 그림들은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되었다.

### 3. 결과

각 정서별 그림들에 대한 선호점수와 친숙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세 종류의 그림 중, 중립정서 그림의 선호점수가 가장 높았고 ( $M = 5.91, SD = 1.14$ ), 부정정서 그림의 선호점수가 가장 낮았다 ( $M = 3.80, SD = 1.30$ ). 각각의 그림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던 그림인지를 평정한 친숙도 점수는 긍정정서 그림 ( $M = 2.36, SD = 0.72$ ), 부정정서 그림 ( $M = 2.31, SD = 0.69$ ), 중립정서 그림 ( $M = 2.07, SD = 1.02$ )으로, 친숙도 평균이 비슷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참가자 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종류의 그림 간 친숙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 $F(1.61, 130.71) = 4.78, ns$ ). 선호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F(1.86, 150.29) = 75.05, MSe = 1.37, p < .05$ ).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시행한 결과, 긍정정서 그림과 중립정서 그림 선호, 부정정서 그림

과 중립정서 그림 선호, 긍정정서 그림과 부정정서 그림 선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 $p < .05$ ), 중립정서 그림 ( $M = 5.91, SD = 1.14$ ), 긍정정서 그림 ( $M = 5.23, SD = 1.29$ ), 부정정서 그림 ( $M = 3.80, SD = 1.30$ ) 순서로 선호되었음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성격 5요인과 그림 선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참조).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성격 5요인 중, 신경증과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 그림 선호도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 $r = .224, p < .05$ ). 곧, 성격 요인 중 신경증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부정적 정서 그림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신경증 점수와 긍정적 정서 그림 선호도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 $r = .099, ns$ ), 신경증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긍정적 정서 그림을 특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 밖의 다른 성격요인과 그림에 대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시된 그림에 대한 선호도와 그림들에 대해 느끼는 친숙성에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참조). 실험 참가자들은 질문지 작성과 그림 선호 평정을 마친 후 친숙도가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들을 다시 보며 각 그림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Table 2. Correlation between Big Five Factors and preference of paintings

Big Five Factors	Paintings		
	positive emotion	neutral emotion	negative emotion
neuroticism	.099	-.085	.224*
extraversion	.037	-.099	.047
openness	.081	-.109	.028
agreeableness	-.069	-.108	-.181
conscientiousness	-.071	-.167	-.085

*n*=82, \* $p < .05$

Table 3. Pearson correlation between preference and familiarity of paintings

Familiarity	Preference		
	positive paintings (preference)	neutral paintings (preference)	negative paintings (preference)
positive paintings (familiarity)	.314**	.124	.007
neutral paintings (familiarity)	.124	.221*	-.240*
negative paintings (familiarity)	.222*	.010	.235*

$n=82$ , \* $p < .05$ , \*\* $p < .01$

그림이었는지 아닌지를 5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평소 잘 알고 있었거나 친숙한 그림일 경우 그 그림에 대한 선호 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세 가지 정서 그림에서 모두 친숙성과 선호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긍정 정서 그림:  $r = .314$ ,  $p < .01$ ; 중립 정서 그림:  $r = .221$ ,  $p < .01$ ; 부정 정서 그림:  $r = .235$ ,  $p < .05$ ). 이 결과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자극을 더 아름답게 평정하며,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Tinio & Leder, 2009)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 4. 논의

성격요인과 그림 선호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 중 미술 사조를 기준으로 그림을 분류하지 않고 그림 자체의 특성에 의거하여 그림을 분류하고 성격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림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림을 분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림에서 표현된 정서를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분류하고 성격 5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그림에 대한 친숙성이 그림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첫째, 외향성 요인은 긍정적 정서 그림에 대한 선호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신경증 요인은 부정적 정서 그림에 대한 선호와 정적 상관, 긍정적 정서 그림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방성 요인은 모든 정서표현 그림들에 대한 선호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넷째, 그림에 대해 친숙한 정도와 그림에 대한 선호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결과, 성격의 다섯 요인과 정서표현 그림에 대한 선호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과 긍정적 정서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Shiota et al., 2006)에 의거하여 외향성은 긍정적 정서의 그림 선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격 5요인과 미술작품에 대한 선호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Furnham & Walker, 2001a, 2001b; Rawlings, 2003)에서, 외향성은 어떠한 그림 선호와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유쾌/불쾌의 정서적 기준으로 그림을 분류하여 작품에 대한 선호와 성격 5요인 간의 관계를 밝힌 Rawlings(2003)의 연구에서도 외향성과 유쾌한 미술작품에 대한 선호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보다 부정적 자극을 마주했을 때 더 큰 반응을 나타내며, 그 반응속도도 빠르다. 신경증과 부정적 정서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외향성과 긍정적 정서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림자극이 유발한 긍정적 정서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신경증 점수와 부정적 정서 그림 간에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곧, 신경증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한 그림을 선호하였다. 신경증이 부정적 정서의 그림 선호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신경증과 긍정 정서 그림에 대한 선호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긍정 정서의 유발이 그림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Zeki

(2001)에 따르면, 우리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작품들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Zeki (2001)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예로 들어 이러한 고통,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미술작품에 대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며, 이를 선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그림에 대한 선호는 특히 신경증 요인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의 뇌영상 연구(Kim et al., 2015)는 슬픔이라는 부정적 정서표현의 미술작품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뇌 기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정서 일반,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통이나 혐오에 해당되는 정서 작품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실증적 연구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부정적 정서표현의 작품에 대한 선호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방성은 예술 전반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사조별로 미술작품을 분류한 연구들에서, 개방성은 추상화, 팝아트, 재현미술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Furnham & Avison, 1997; Furnham & Walker, 2001a; Rawlings, 2003), 예술에 대한 흥미, 예술 활동, 예술 전반에 관한 지식과도 상관이 나타났다(Furnham & Walker, 2001a).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에 따른 예술 선호가 인류 보편적인 요소라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개방성 요인이 정서표현 미술작품에 대한 선호도에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개방성은 세 종류의 그림 어느 것과도 정적이든 부적이든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격 요인에 따른 문화 차이를 조사한 Yoon 등(2002)에 따르면, 성격 5요인 척도를 미국인과 한국인에게 비교 실시한 결과 개방성을 비롯하여 외향성, 친화성에서 성차가 있었음을 밝혔다. 특히 개방성의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개방성 점수가 높았는데, 한국인에서 그 차이의 폭이 더 컸음을 보고하였다. 서구사회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예술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은 전통이 짧다는 점(Kim & Suh, 2011)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Kim과 Tocker (2014)의 연구는 정서조절의 역할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또한 서구권에서 연구된 결과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뒷받침한다.

넷째, 성실성 요인은 세 가지 정서 그림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그림에 대한 선호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실성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던 요인이다. Furnham과 Walker(2001a)의 연구에서는 성실성은 재현미술에 대한 선호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그들의 또 다른 연구(Furnham & Walker, 2001b)에서는 재현미술에 대한 선호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성실성은 팝아트, 일본화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 외에 Furnham과 Chamorro-Premuzic(2004)의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예술에 대한 지식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실성 요인은 예술작품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없거나, 선호하지 않음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실성이라는 성격요인은 규범적 성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이 Oh와 Gang(2010)의 연구에서 미술작품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아동이 그린 학교생활 그림의 반응특성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성실성이 높은 아동들의 인물화는 선의 표현이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명료하여 조직성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미술작품의 특성이 사진과 같은 사실적 묘사보다는 모호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 선호가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친화성은 어떤 종류의 그림 선호와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화성의 경우에도 성실성과 마찬가지로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Furnham과 Walker(2001a)의 연구에서는 친화성이 팝아트에 대한 선호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Furnham과 Walker(2001b)의 연구에서도 팝아트 미술작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화성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awlings(2003)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쾌한/불쾌한 재현미술과 추상화에 대한 선호에 대해 친화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친화성이 특정 미술작품에 대한 선호와 관계가 있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정서표현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결과는 신경증 요인과 부정적 정서 그림에 대한 선호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관찰한 것이다. 성격과 그림선호 사이의 상관을 연구해온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미술



사조에 따른 분류로 상관관계를 분석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인 그림을 제시하여 성격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신경증 요인과 부정적 정서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찾아내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점을 발견한 것이다.

성격 5요인과 그림선호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목적은 그림에 대한 친숙도와 그림선호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친숙도와 그림선호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네 번째 가설이 일부 지지되었다. 자극으로 사용된 그림들에 대한 선호점수와 친숙점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정서 그림의 친숙점수와 선호점수 간, 중립적 정서 그림의 친숙점수와 선호점수 사이, 부정적 정서 그림의 친숙점수와 선호점수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친숙한 정도가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보처리를 더 빠르게 하고, 정보처리가 쉬운 대상이 선호된다는 유창성 가설(Reber, 2012; Reber et al., 2004)을 지지한다. 또한 미술작품에 대한 친숙도가 선호와 관련됨을 입증한 Leder(200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 그림의 친숙점수와 긍정적 정서 그림의 선호점수 간, 중립적 정서 그림의 친숙점수와 부정적 정서그림의 선호점수 간에도 나타난 정적 상관은 유창성 가설 및 친숙도와 선호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작품 내에는 그림의 주제, 그림의 대상, 사용된 색, 밝기, 요소의 다양성, 사용된 재료, 작가의 의도 등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그림이 표현하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성격 요인에 따른 선호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부정 정서에 대한 선호도와 신경증 요소의 정적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미술 사조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작품 분류법을 사용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심리학적 연구에 적합한 정서가를 기준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술 사조가 아닌 그림에서 표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호도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미술심리학 연구에

본 연구가 작은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아름다움에 관련된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아름다움의 객관적 측정과 구체적인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Park et al., 2008). 본 연구는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탐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미술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화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나, 작품에 내재하는 많은 변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아름다움의 요인을 탐구한 Lee 등(2011)은 실험실에서 제작된 프랙탈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된 자극들로 미적 경험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프랙탈 이미지를 이용하여 미적 경험과 성격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Chamorro-Premuzic, T., Reimers, S., Hsu, A., & Ahmetoglu, G. (2009). Who art thou? Personality predictors of artistic preferences in a large UK sample: The importance of opennes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0*(3), 501-516.
- Cho, K. J., Park, S. J., Song, I. H., & Ghim, H. R. (2007). Developmental changes in emotional-states and facial expression. *Korean Society for Emotion & Sensibility*, *10*(1), 127-138.
- Dellas, M., & Gaier, E. L. (1970). Identification of creativity: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Bulletin*, *73*(1), 55-73.
- Etcoff, N. L., & Magee, J. J. (1992). Categorical perception of facial expressions. *Cognition*, *44*(3), 227-240.
- Eysenck, H. (1972). Preference judgments for polygons, designs, and drawing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4*(2), 396-398.
- Eysenck, H., & Castle, M. (1970). A factor-analytic study of the Barron-Welsh Art Scale. *The Psychological Record*, *20*(4), 523-525.
- Faw, T. T., & Nunnally, J. C. (1971). The influence of stimulus incongruity on the familiarity effect in

- visual selection. *Perception & Psychophysics*, 9(2), 150–154.
- Furnham, A., & Avison, M. (1997). Personality and preference for surreal painting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6), 923–935.
- Furnham, A., & Chamorro-Premuzic, T. (2004).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a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3), 705–715.
- Furnham, A., & Walker, J. (2001a). Personality and judgements of abstract, pop art, and representational painting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1), 57–72.
- Furnham, A., & Walker, J. (2001b).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previous experience of art,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artistic prefer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6), 997–1017.
- Gadamer, H. G. (2000). *Truth and Method*. Gyeonggi: Munhakdongne.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1), 7–28.
- Hong, S. K. (2014). *Personality Psychology II*. Seoul: Paryoungsa.
- Kim, E. M., & Suh, S. R. (2011). Profiling cultural omnivores in Korea: Quantity and breadth of cultural consump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Studies*, 55(5), 205–233.
- Kim, J. S., Shin, E. H., Kang, H. M., & Kim, C. Y. (2015). Sad but beautiful; Brain responses to aesthetic judgment and emotion appraisal of visual art.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7(2), 231–251.
- Kim, M. Y., & Tocker, Y. (2014). Emotion regulation as a pathway through which personality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A preliminary stud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Society for Emotion & Sensibility*, 7(1), 63–70.
- Leder, H. (2001). Determinants of preference: When do we like what we know?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19(2), 201–211.
- Lee, H. J., Lee, S. B., Jung, W. H., & Son, J. W. (2015). Cerebral lateralization and preference for the stimuli arrangement.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7(1), 59–75.
- Lee, S. B., Jung, W. H., Son, J. W., & Jo, S. W. (2011). Neural correlates of the aesthetic experience using the fractal images: an fMRI study. *Korean Society for Emotion & Sensibility*, 14(3), 403–414.
- Lemond, L. C., & Nunnally, J. C. (1974). The influence of incongruity and preexposure on the familiarity effect in visual selection of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8(3), 373–381.
- Looft, W. R., & Baranowski, M. D. (1971). An analysis of five measures of sensation seeking and preference for complexity.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5(2), 307–313.
- Oh, J. H., & Gang, G. T. (2010). Relationship between responsive characteristics and 5 personality factors shown in KSD. *Journal of Art Education*, 27, 99–133.
- Park, S. J., Lee, Y. R., & Kim, E. J. (2008). The beauty dimensions related to human attractiveness. *Korean Society for Emotion & Sensibility*, 11(2), 139–152.
- Rawlings, D. (2003). Personality correlates of liking for “unpleasant” paintings and photograph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3), 395–410.
- Reber, R. (2012). *Aesthetic science: Connecting minds, brains, and exper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ber, R., Schwarz, N., & Winkielman, P. (2004). Processing fluency and aesthetic pleasure: Is beauty in the perceiver’s processing experi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8(4), 364–382.
- Shiota, M. N., Keltner, D., & John, O. P. (2006). Positive emotion dispositions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Big Five personality and attachment styl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 61–71.
- Simon, C. R., & Wohlwill, J. F. (1968).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role of expectation and variation in music.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6(3), 227–238.
- Tinio, P. P., & Leder, H. (2009). Just how stable are stable aesthetic features? Symmetry, complexity, and the jaws of massive familiarization. *Acta Psychologica*, 130(3), 241–250.
- Vitz, P. C. (1966). Preference for different amounts of

- visual complexity. *Behavioral Science*, 11(2), 105–114.
- Yoon, K., Schmidt, F., & Ilies, R. (2002). Cross-cultural construct valid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mong Korean employe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3), 217–235.
- Yoo, T. Y., Lee, K. B.,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3), 61–75.
- Zeki, S. (2001). 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 *Science*, 293(5527), 51–52.

원고접수: 2015.09.03  
수정접수: 2015.11.23  
게재확정: 2016.06.13

<Appendix 1>

1. Negative emotion	2. Positive emotion	3. Neutral emo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Ámos imre, Abhorrence (1944)</li> <li>Ⓑ Edvard Munch, Jealousy (1895)</li> <li>Ⓒ Edvard Munch, Anxiety (1894)</li> <li>Ⓓ Pablo Picasso, Guernica (1937)</li> <li>Ⓔ George grosz, Street Scene (19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rc Chagall, I and the Village (1911)</li> <li>Ⓑ Henri Matisse, Le bonheur de vivre (1905-1906)</li> <li>Ⓒ Wassily Kandinsky, Improvisation (6 African) (1909)</li> <li>Ⓓ Pierre-Cécile Puvis de Chavannes, Hope (1871)</li> <li>Ⓔ Amedeo Modigliani, Portrait of Jeanne Hebuterne (19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ean BaptisteSiméon Chardin, Der Zeichner (1738)</li> <li>Ⓑ Jean Baptiste Siméon Chardin, Le Bénédicité (1740)</li> <li>Ⓒ Jean Baptiste Siméon Chardin, A Philosopher Occupied with His Reading (1734)</li> <li>Ⓓ Jean Baptiste Siméon Chardin, The Diligent Mother (1740)</li> <li>Ⓔ Jean Baptiste Siméon Chardin, Lady Sealing a Letter (1732)</li> </ul>